

기사입력: 01/03/14 16:08

인쇄하기

**‘선조들의 문화’ 직접 체험**



다솜한국학교, SF AAM ‘조선왕조, 잔치를 열다’ 관람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 학생들이 SF 아시안아트뮤지엄(AAM) 특별전 ‘조선왕조, 잔치를 열다’를 견학, 한국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2일 AAM을 찾은 학생들은 조선시대 왕실 행사와 궁중 생활을 보여주는 유물들을 관람하고 역사 퀴즈 등을 풀면서 수업때 배웠던 내용을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 안은주씨는 “아이들이 유물을 관람하면서 단순 암기식 역사 공부가 아니라 체험을 통해 역사를 익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자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미영 교장은 “조선 왕조의 연회 문화를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었다”며 “많은 이들이 조선 왕실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직접 와서 체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AAM의 특별전 ‘조선왕조, 잔치를 열다’는 오는 12일까지 열리며 한국학교 등에서 단체 관람을 신청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주소: 200 Lakin St. SF

▶ 문의: <http://www.asianart.org/visit/group-visits>